

보냄호를 열며

담임목사 칼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20:19-23

2023년은 우리 교회 '선교의 해'입니다. 4년 주기를 두고 이제 두번째로 진행 되는 영혼구원, 성숙, 선교, 성경통독 해의 사이클은 내년을 기점으로 마감할 생각입니다. 4년마다 전교인이 성경 통독 운동을 함께 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서 계속 되겠으나 다른 해는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과, 성도 각자의 영적 성숙과, 열방을 제자 삼는 선교는 특정 해에만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매달, 매년 계속되어야 하는 교회의 핵심적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대위임령(마28:18-20)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 된 교회의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토를 달고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가정교회 운동의 핵심으로 우리 모두가 인식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이 왜 그토록 부담스럽기만 하고 사이다 없이 고구마를 먹는 것 같은 마음만 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이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구하셨습니다. 이 평강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이며 히브리어로 바꾸면 '샬롬'입니다. 보냄 받아 세상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샬롬이 필요합니다. 20세기 초 스코틀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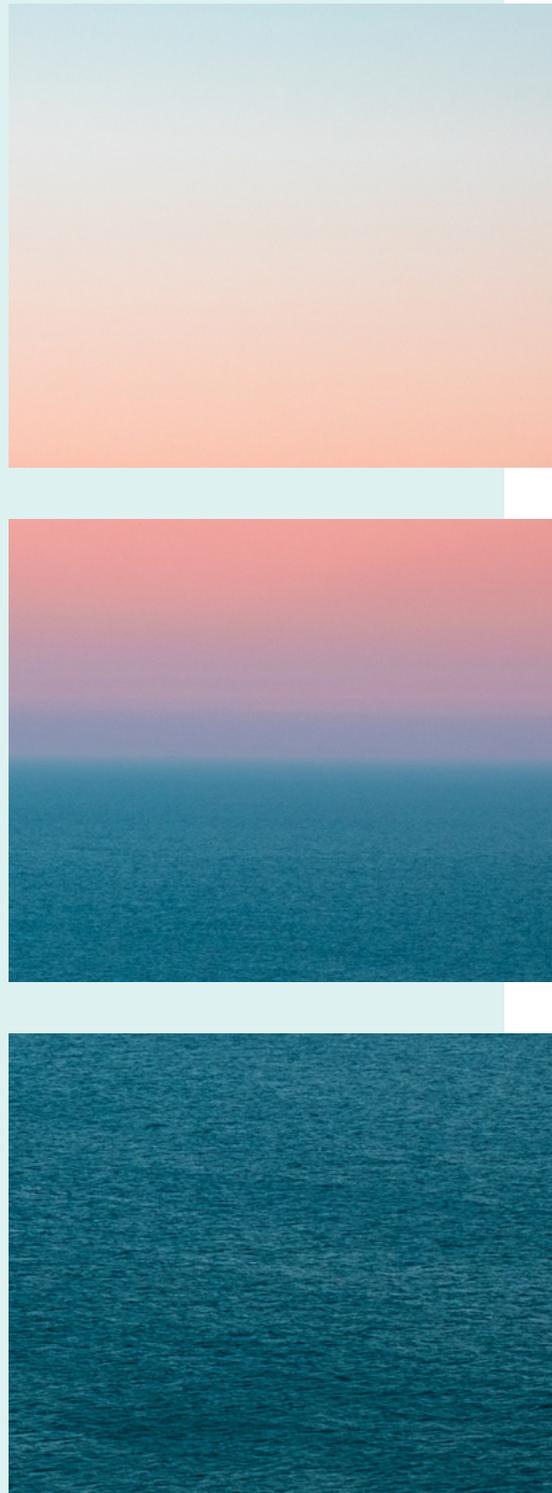
사역했던 조지 모리슨은 이 평강을 가리켜 "넉넉한 자원을 소유한 상태"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절대로 마이너스로 내려가지 않는 은행 구좌가 나에게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기쁘겠습니까?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읽어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누리는 평온한 관계 속에 있는 자신의 상태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의 흔들림도 없는 완벽한 소통과 나눔의 관계, 주님에게는 그것이 있었기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위대한 사명을 올곧게 끝까지 완수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평강, 마르지 않는 살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베이 지역은 물질 문명의 첨단 산업으로 꽃을 피운 지역입니다. 인류를 이롭게 하기 위한다는 고귀한 목적이지만 풍요로와 보이는 이 곳에서도 목마르고 영적 빈곤에 허덕이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눈'으로 이곳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올해 각 개인의 삶에서, 가정이 함께, 혹은 목장 단위로 우리 모두가 베이 지역에 위치한 여러 열방을 섬기는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위원회에서 준비한 자료를 통해 이 한 해를 어떻게 섬길까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8백만에 가까운 이 지역 인구 중 37%가 넘는 3백만의 인구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언어적으로 볼 때 미국에는 327개의 언어 그룹이 있는데 그 가운데 215개 언어 그룹이 캘리포니아에 존재합니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유명한 문구가 있지요. 저는 "Pray Globally, Act Locally"라고 바꾸어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열방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특별히 이 베이 지역을 향해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평안하십시오.

글 | 박성호 목사



또 다른 주님의 안경을 쓰기 원합니다

임마누엘 장로교회 당회 14년차 박용갑 장로입니다. 함께 저의 간증을 나눌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가” 군사된 자로서

빌립보서 2:25 그는(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 된 자요.

믿는 사람은 군사인 까닭에 평상시에는 많은 훈련을 말씀읽기와 묵상 그리고 삶을 말씀대로 살아내기, 성령님 음성듣기, 그 음성에 순종하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교전투에 투입되어 전투하기 등. 많은 훈련, 영적전투 그리고 휴식 또 그러한 패턴으로 이어지는 일상이 군사의 삶 그 자체입니다. 특히 장로의 직분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군사인 관계로, 더 강도 높은 끝 없는 훈련을 거듭하며 영적 전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로의 경우에는 마치 매달 1번씩 당회에서 서너 시간씩, 하나님 앞에서, 듣는 훈련, 말하는 훈련, 생각하는 훈련, 행동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저의 경우는 13년 12달 x 3 시간 씩 거의 468 시간 넘게 공식적인 군사의 훈련을 당회로 부터 받아온 셈입니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교회와 당회에 감사할 따름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군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회를 Retire하는 순간까지는 한명의 주님의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당회에서 계속하여 훈련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의 뜻을 깨달아

에베소서 3:19 (그리스도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군사의 직분은 주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늘 성령충만의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군사인 우리도 주님을 닮기 위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신을 신어보지 않고서 어떻게 그 신발에 있는 그 모래의 불편함, 그 이물질의 아픔을 이해 할수 있겠습니까? 비록 상대방의 신을 신지 않더라도, 그 상황에 대한 배려를 고려하는 것이 성숙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그 입장에 대한 이해도가 믿음의 성숙도 일수도 있습니다.

저희 임마누엘 장로교회 당회는 당회장 목사님과 14분의 장로님들이 매월 정기당회와 임시당회로 섬기고 있습니다. 관건은, 비록 하나님 앞이지만 15분의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궁극적으로는 같은 사건, 같은 사물에 대해서, 다른 각도의 생각과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성숙도를 가지신 당회원들이 어떻게 박성호 목사님의 리더쉽 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결정을 내려 가는가 입니다.

흔히들, 어떤 사회이든지 이중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그 사회의 Elite라고 합니다. 왜냐면 같은 사물에,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기에 더 포괄적인, 더 전체적인 관점에서, 더 성숙된 관점에서 이해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사회에서도 Bilingual (이중언어)를 한다는 것은 두 문화의 관점에서 사건과 사물을 더 폭 넓게 이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예, 어떤 직업은 이중언어를 쓰는 직원에 대해서 우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나만의 시각이 아닌 제 주변의 관점도 수용할 수 있는 주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공감 능력을 줍니다.

"내가" 또 하나의 훈련 과정을 만나며

요한복음 14:6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흔히들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의 정서는 미국 공황에 발을 딛는 순간의 그 한국시간의 정서와 관념으로 고정된다고 합니다. 가령 저의 경우는 1986년 미국땅을 밟았기에 1986년 한국정서를, 한국관념을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1986년의 한국사람 정서와 관념을 가진 한 이방인이 2023년 이 미국땅에서 미국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된 언어 공간과 한정된 문화의 파노라마입니다. 가령, 집밖의 공간은 미국 문화, 교회는 1986년의 이민 교회 그리고 가정은 결혼을 한 1991년의 한국 언어, 한국 문화 그리고 그 상황이 매일 24시간의 연속으로 펼쳐집니다. 웬만한 Mental이 아니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고정된 정서와 관념으로 세상을, 교회를, 사회를 바라보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는 저도 그리고 다른 한국 사람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교회는 주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다른 상황의, 다른 인생관의, 다른 관념의 파노라마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비록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미국 땅을 밟은 시점이 다르기에 다른 한국 정서와 관념과, 엄밀히는 다른 한국문화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저의 경우, 처음 북가주 노회와의 인연은 13년 전, 장로교회 청원과 5년전 투표권을 가진 총대로서의 참석입니다. 그것은 낯선 용어와의 또 다른 세계와의 처음 만남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는 잘 듣지 못했던 생소한 단어들, 주종을 이루시는 목사님들의 세계관 그리고 아무리 질서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세세함이 이어지는 회의 방식 등 전혀 다른 면을 추구하면서도, 질서를 중요시하는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들, 북가주노회의 참석은 또 다른 각도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많은 파노라마의 시야가 펼쳐져 눈이 따라잡기에도 어려운, 희미한 정체성의 시야에서 또 다른 시각을 주심으로 더 뚜렷한 형상을 볼 수 있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훈련으로 인도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의 말씀에서처럼, 북가주노회의 참석은 "내가" 라는 주님의 또 다른 시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안경을 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라고 하는, 주님의 눈으로 당회를, 교회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라고 하는 주님의 안경을 쓰기 원합니다.

글 | 박용갑 장로



나의 목적

The first time I learned about the word “purpose” was in 7th grade through my middle school choir instructor. He had found his calling through teaching and wanted to share that joy with his students by teaching us the value of leadership, teamwork, and ,most importantly, service. At the time, the idea of having a "purpose" was just a philosophical idea that went over my head like many others.

Later, however, this idea would lead me to visit a country called Niger,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with an average life expectancy of about 55 years. After missionary Eileen had given her testimony at our church, I felt inspired to experience the inner workings of a school that was built with the purpose of giving young girls in Niger an education and opportunity to connect with Christ. My mother has been linking children’s stories with the Bible

for 14 years. I have always been passionate about art, so we felt called to share our gifts at Grace Academy.

What touched me the most during this trip was connecting with the girls in Grace Academy. I quickly learned that they are an incredibly enthusiastic, humble, and hardworking group of people. By conversing with them, I could see how much joy they had for God, each other, and life itself. Even though they appear carefree, however, many of them are deeply affected by tragic pasts. Among those who apply to the school, only families most greatly affected by financial hardship and difficult living conditions are admitted.

Through this trip, God showed me how much of a sinner I am. Even though I come from an extremely privileged background, I rarely show gratitude for the life that He has given me. Instead, I am constantly distracted by the noise of expectations, grades, and insecurities, complaining about all the flaws I see in myself and my life.

On the second to last day of our trip, my mom read the students a biography about Louis Braille, a man whose visual impairment led to him inventing braille. Before he died, he said his last words, “My mission on Earth is completed." Everyone has a mission and purpose in life in Christ regardless of who they are, what situation they are in, and what their capabilities are. I am grateful to God for allowing me to witness



the work he is doing through missionary Eileen and the incredible staff and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start discovering my mission and purpose in life in Him by teaching art to Grace Academy students and being able to connect with them on a personal and spiritual level.

목적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된 것은 7학년 때 중학교 합창단 선생님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선생님은 가르침을 통해 소명을 찾았고, 우리에게 leadership, teamwork, 그리고 가장 중요한 봉사의 가치를 가르치시고 학생들과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했습니다. 그 당시에 "목적"을 갖는다는 생각은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내 머리를 스치는 철학적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생각은, 평균 기대 수명이 약 55세인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니제르라는 나라를 방문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혜림 선교사님의 간증을 저희교회 youth 예배에서 들은후, 저는 니제르에 어린 소녀들의 교육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 지어진 학교에서, 내부 활동을 경험하고 싶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4년 동안 동화와 성경을 연결시켜 왔고, 저는 항상 예술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Grace Academy에서 저희의 재능을 나누는 것에 대한 소명을 느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Grace Academy의 여학생들과의 인연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정적이고 겸손하며 근면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하나님과 서로를, 그리고 삶 자체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평해 보이지만 그들 중 많은 학생들이 아픈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원자 중 경제적 어려움과 어려운 생활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가정의 학생들만 입학이 가능합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지극히 특권적인 배경에서 태어났지만 그분이 제게 주신 삶에 대해 좀처럼 감사로

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제 삶에서 보이는 모든 결점에 대해 불평하면서 기대, 성적, 불안의 소음에 끊임없이 산만했었습니다.

여행 마치고 하루 전날 저희 어머니는 학생들에게 시각 장애로 인해 점자를 발명한 Louis Braille에 대한 전기를 읽어 주셨습니다. 그는 죽기 전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나의 임무는 완수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능력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예수님 안에서 삶의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정혜림 선교사님과 staff를 통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하게 하시고 Grace Academy 학생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걸 통해 그들과 연결될 수 있게 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저의 사명과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것과 개인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그들과 함께 할수있게 해주신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글 | 민채영 (Youth)



성숙 조력자로서의 다짐

지난 3월 12일 공동의회를 통해 피택되신 예비 장로 9분은 교육을 이수한 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편집부는 3월 25일 첫 교육 이후 교회의 성숙 조력자로서의 한마디 다짐을 들어보았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닮아가는 직분자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강창범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쓰임을 받기만 한다면 막대기 자신은 자기의 능력없음이 전혀 문제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주권을 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김범진

공동의회 투표 전 "변질되면 안돼요" 라는 따뜻한 조언과 공동의회 투표 바로 직후 "겸손하세요" 라는 따끔한 조언을 듣고 첫 피택자 훈련을 다녀와서도 계속 주시는 마음은 일하려고 말고 기도 먼저 하라고 하시는구나, 깊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입니다.



김우정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제게 주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하여 사용하고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김제찬

부족한 제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섬기기에 앞서 직분자로서의 훈련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노력하며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의지를 주실 줄을 믿으며 6개월만의 훈련이 아닌 평생의 훈련이 되어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김종필

이 과정이 부족한 제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할수있도록 주신 기회라고 믿습니다. 앞으로의 6개월 훈련을 통해 저의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송옥영

첫 교육 현장에서 학창시절에 배웠던, "Brush up on something"이라는 속어가 제 마음을 표현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직분에 대한 마음 다짐을 새롭게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이종상

겸손으로 섬기며 순종하여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주의 선한 일들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한의상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심에 하나님께 영광올리며 공동체에 감사드립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사랑으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Tom Kimm

I will continue to serve God and serve EPC, because I am a disciple for Christ and a member of EPC.

다시 한번
가정교회의 비전을 위해
신발끈을 고쳐매고
경주하는 출발선에
서야할때입니다.



오로지 십자가 사랑 앞에서

지난 3월 1일, 수요일에는 강찬 찬양 사역자의 찬양 집회로 올려졌습니다. 2002년 '여정'이라는 CCM 앨범을 발표하며 2023년 3월 16일 발매된 '길'까지 총 7장의 정규 앨범과 1장의 라이브 앨범을 발표했고 100여장의 다양한 앨범에 피쳐링 아티스트로 참여한 인천평강교회 협동목사(찬양사역)이며, 국제NGO 기아대책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된 11곡이 올려졌으며 함께 방문한 막내딸과 함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이날 강찬 사역자는 여러 교회를 돕는 순회 사역자로 본인을 소개하며 일상 속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평안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찬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임마누엘 찬양팀은 인터뷰를 통해 목사님의 찬양 사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Q 임마누엘 공동체와 함께 은혜로운 찬양과 간증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문하신 느낌이 어떠셨는지요?

A 먼저 박성호 목사님과 서면 인사를 통해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느꼈는데 직접 방문하니 교회도 성도님들도 온화했습니다. 보통 장로교회에서 찬양을 하면 보수적이고 대부분 경직되어 있는 것을 경험했는데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따뜻하지만 열정적으로 함께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교회 방문하고 예배를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이 뜨거워지며 임마누엘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울려 퍼지는 교회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Q 이번 미주 방문은 어떻게 계획되셨는지요?

A 팬데믹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2020년 산호세와 LA 지역의 순회 사역 일정이 잡혀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임마누엘 교회를 몰랐었고 산호세에 위치한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그때 섬기지 못했던 집회를 섬기는 일정 가운데에 임마누엘과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연결해 주셔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Q 집회 곡들은 어떻게 선정하시게 되었나요?

A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기도를 많이 하며 곡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와 '걷는 길마다 복되도다.' 그리고 나눴던 말씀 중 히브리서 12:14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는 제 인생과 곡을 쓰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집회의 핵심은 '복음' 인데요. 우리들이 십자가 사랑앞에 반응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찬양을 올리고 마음을 여는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Q 찬양곡 중에 '지푸라기'라는 곡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A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사역이 취소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때, 남아공에서 사업하시는 집사님이 암 때문에 치료차 한국에 나오셨는데 제 찬양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으시다면서, 목사인 저의 기도를 받고 싶어 하신다는 연락을 주셨어요. 그 분 한분을 위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나눔을 하고 싶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만나기 쉽지 않았지요. 집회 이후 투병중이셨던 집사님의 건강이 많이 좋아지시는 기적이 일어났구요. 그 소식을 들은지 얼마 안된 시점에 여행스케치 리더 조병석 집사님으로부터 '지푸라기'라는 곡을 불러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곡의 사연을 들어보니 암환자의 사연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암환자들과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찬양으로 위로하라는 뜻처럼 여겨져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게 됐습니다. 녹음하는데 감동이 되어서 울컥울컥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들 어려운 때에 절망하고 무기력해지기 쉬운데 이 찬양이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어려운 분들에게 치유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소망이 담겨진 곡입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집회가 있었을까요?

A (주저없이) 임마누엘 교회요. (웃음) 사실 모든 집회가 다 기억에 남습니다. 3000번이 넘는 집회를 하면서 한 번도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집회가 있다면, 이번 방문때 2살부터 6살 어린이만을 위한 집회를 했었는데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니다. 살롬 크리스찬 아카데미 라는 곳에서 집회 요청이 왔는데 대상이 2살부터 6살 이라고 해서 가능할까 생각하며 찬양을 했는데 아이들의 맑고 깨끗한 눈을 마주하며 찬양하는 기쁨이 있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Q 목사님 찬양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께 집회를 올려드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저희도 온 성도들과 기쁘게 찬양을 드리기를 바라며 찬양팀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각자의 삶이 그렇지 않을때가 많습니다. 목사님도 고단한 삶의 순간들이 있으실텐데요. 어떻게 하면 기쁨의 예배를 늘 드릴 수 있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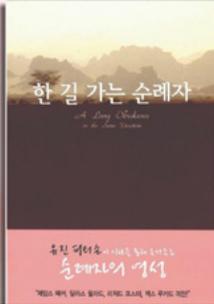
A 찬양을 올리는 사람들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찬양 올리는 분마다 성격이 다 다를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낙심되거나 힘든 일이 있을 경우 빨리 잊어버리는 성격이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잘 잊어버리고 어떠한 경우에는 어리버리하기까지 한데요. 이런 제 연약함이 찬양사역자로서는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삶을 살다보면 물론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요. 하지만 저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저 기쁘게 찬양이 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찬양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구요. 그리고 예배 전에 꼭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요.

Q 임마누엘 교인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A 임마누엘 교회가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큰 교회더라고요. 세상은 큰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거든요. 임마누엘 교회 내부적으로 그 선하고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흘러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한분 한분이 걸어다니는 임마누엘 교회잖아요. 여러분 한분 한분이 삶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며 각자의 퍼즐을 임마누엘이라는 큰 그림으로 완성해나가는 그리고 하나님 시간표에 의해 살아가는 임마누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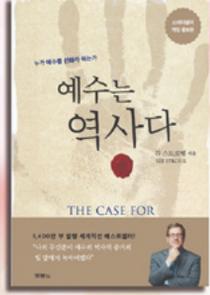
정리 : 김유진, 김희도, 정용익 (찬양팀)

담임목사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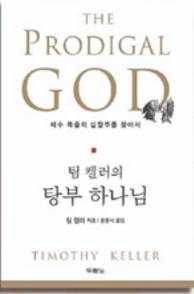
한 길 가는 순례자
유진 페터슨

오직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나아 가는 순례자의 영성



예수는 역사다
리승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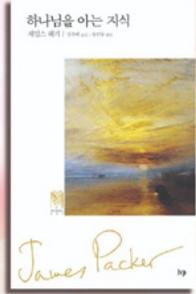
역사적 예수와 마주하다



THE PRODIGAL GOD
TIMOTHY KEL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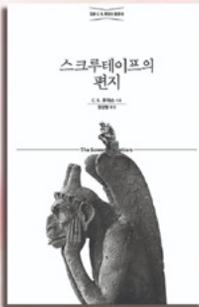
티몰러의 탕부 하나님

탕자의 비유로 본질적 복음의 핵심을 잡아 낸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임스 패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경이로움과 영광, 기쁨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C.S. 루이스

인간의 본성과 유혹의 본질에 관한 탁월한 통찰



교회, 가정에서 시작하다
래드 지데로

가정교회에 관한 성경적 원리와 역사적 조망, 그리고 개인적 경험



뿌리 깊은 영성
강준민

영적 훈련과 성장, 열매 맺는 영혼 관리에 관한 탁월한 안내서



일터 신앙
이효재

그리스도인들이 일터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신앙과 소명 그리고 삶의 이야기

성막의 세계
김경열

히브리 원문에 입각해
철저히 탐구하여
재구성한 성막 책

산비
에일린 크로스만

리수족에게 복음을 전파한
영국 선교사
제임스 O. 프레이저의 전기

신간도서

작은 땅의 야수들
김주혜

대한민국의 독립 투쟁과
그 격동의 세월 속에
휘말려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조정민의 답답답
조정민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당신에게

믿음의 선택이란 무엇인가
조정민

창세기 돋보기 2-보이지
않는 영원한 약속을
택하는 것이 믿음의 결정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입맞출 때
김학철

성서화의 신학적 해석에
주목, 그를 통한 성서 본문의
재조명

탈기독교시대 전도
팀 켈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에 닿을 수 있을
것인가? '에 닿이기 위해 교회
사람 되잖아 보고 현시대를
복음으로 분석

잘 산다는 것
유진 피터슨

유진 피터슨의 미출간
원고, 당신의 평범한
삶에 깃든 비범함을
발견하십시오!

Creative Design & Photography Contest

Take a part in this creative
Design and photography contest!

Theme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even so I am sending you
(John 20:21)**

- When is due date ? May 14 / 2023
- Who can participate? Youth / KM & EM Young Adult
- What is the format? JPGE, PNG or PDF (under 8mb)
- Where to submit? E-mail to publication@kepc.org

1st Place - \$200 Gift certificate
2nd Place - \$100 Gift certificate
3rd Place - \$20 Gift certificate

Contact Person: Sandra Lee (Head of Design)
jadeblue1999@gmail.com

